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제주 학생들, 아프리카 말라위 학교건립사업에 1억여원 성금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빵’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빵에 동전을 많이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동전을 모으지 못해 죄송해요. 10원짜리 동전이나 1원짜리 동전 하나하나가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동전을 모아 사랑의 빵을 채워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희망이 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생이 ‘사랑의 빵’이란 이름의 저금통에 동전과 함께 넣어 보낸 쪽지의 내용이다.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작은 동전도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기적이 됩니다”라고 적힌 마지막 문구에는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사랑의 빵’은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가 지난 3월 도내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160여 개교에 나눠준 저금통이다.

‘사랑의 동전밭 동전모으기’란 캠페인을 통해 지난 5월 중순 각 학교에서 수거한 저금통만 무려 6만여 개에 이른다. 액수로는 1억1700만원. 제주지역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자발적으로 내놓은 금액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태진 결과다.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아진 동전은 아프리카 말라위에 초등학교를 짓는데 쓰일 예정이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인구 1400만명이 사는 가난한 나라다. 에이즈와 말라리아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사망하고, 100명의 아동 중 10% 이상이 5세가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

의료시설 못지 않게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하늘만 가린 채 사방이 탁 트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움막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월드비전 제주지부가 학교 건립을 추진 중인 곳은 말라위 수도 릴롱웨에서 375km 떨어진 ‘상가’ 지역에 있는 치무부 초등학교.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8개 학년 중 2개 학년만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한 개반에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은 교실을 사용한다. 나머지 6개 학년은 짚으로 만든 움막에서 공부를 한다. 학생은 1000명이 넘지만 교사는 고작 4명이 전부다.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

비는 총 1억5000만원.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거둔 모금액과 모슬포방어축제 때 음식 판매 수익금을 종자돈 삼아 번듯한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4월 첫 삽을 떴다. 학교 건물 신축 외에 교육 기자재와 학습 교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호 월드비전 제주지부장은 “어린이들의 정성이 모아져 1억원이 넘는 큰 돈이 됐다”며 “이미 기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7월부터 운영

7월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이사랑부모 모니터링단’ 6월 말까지 구성,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과 위생, 건강관리 등 교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재정 지원이 해마다 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취지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이동한 이사장, 호암상성금 3억 기부
시설 탐방·봉양복지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조순기정 보금자리 새 단장
대한민국아동총회 제주지역대회 개최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국제나눔컨퍼런스 등 토론회 개최
- 기획 8면
아름스팀 자원봉사·청솔작사봉사팀
아름스팀식물나눔·제주어아동지역사회센터



7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8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람-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서귀포시 위탁아동 여름나기 프로그램	물놀이, 댄스교실 등	21~22일 웰리조트	747-3273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가족캠프	미술치료, 문화체험 등	21~22일 그린나래펜션	712-1391
제주장애인인권포럼	10주년 기념식	기념식, 만찬 등	19일 오후 6시 파라다이스회관	751-8097
	2012 중증장애인바다낚시대회	배낚시, 방파제낚시	오전 11시 ~ 오후 4시	751-809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 형제 캠프	물놀이, 팔빙수 만들기 등	27~28일	702-0295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지도자 과정 워크숍	중·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 등	19~22일 건강가정지원센터	725-801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사업공감 커뮤니케이션	12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702-3784

호암상 상금 3억원 전액 기부

춘강 이동한 이사장, 장애인 해외지원기금으로 쾌척
세금은 자비로 부담...장애인 복지사업에 '헌신'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이 호암상 상금으로 받은 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지난 6월 26일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소영 홍보대사, 김순두 제주지회장,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동한 이사장, 김형식 배분위원, 김주현 공동모금회사무총장.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온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61) 이사장이 호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3억원 전액을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상금으로 받은 3억원의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비로 부담하고 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 상금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 힘쓴 공로로 지난 6월 1일 '2012 호암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것이다.

기부금은 재개발기관의 장애

인을 위한 해외지원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1950년대 장애를 안고 자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며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재개발국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이 이사장은 2세 때 앓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 됐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조정업 등을 통해 사업가로 성공하며 1987년 사회복지법

인 '춘강(春江)'을 설립했다. 춘강은 이 이사장의 법명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근로센터,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재활의료시설인 춘강재활의원 등을 세워 운영 중이다.

모금회는 1억원 이상 기부자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분류함에 따라 그는 118번째 회원이 됐다.

익명회원 17명을 포함하면 135번째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은 6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보호받는데 있지 않고 직업인으로 자립해야 하며 장애인 복지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이 나서 복지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장애인 복지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로공원인 '메이즈 랜드'를 설립했다.

관광시설이지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가족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 83%가 부모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복지부, 특례법 제정 추진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83%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146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가운데 가정 내 발생 사례가 5246건(86.6%),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정 비율이 8.7%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70건으로 전년 227건에 비해 19% 늘었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는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보다 학대

자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중복학대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가칭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 권장,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 강화,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키로 했다.

화장률 52.8%...제주 장례문화 변화

매장률 처음 앞질러

제주지역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바뀌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망자 3110명 가운데 1643명이 화장을 해 52.8%의 화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도 화장률은 48.3%였다.

10년 전인 2002년도만 해도 제주 지역의 화장률은 18.3%에 그쳤으나 2008년

42.5%, 2009년 4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장유골 화장 건수도 2010년 3499건에서 2011년에는 44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국 평균(2010년 기준) 화장률 67.5%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개장한 자연장지인 제주시 연동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까지 203구가 산골(散骨) 안장되는 등 수목장 같은 자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확인조사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사업 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제주도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지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확인조사를 벌인다.

조사를 거쳐 급여변동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7월 급여부터 변동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명기간 동안 현금급여가 중지되며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제주시, 복지공동체 희망드림단 가동

제주시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희망드림단'을 운영한다.

희망드림단에는 복지·보건·교육·자활·고용·신용 등 7개 분야에 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기관, 금융기관, 보건소, 교육지원청, 자원봉사센터 등 2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희망드림단은 앞으로 경제·건강·정서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고용·보건·교육·주거 등 사례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6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희망드림단에 참가하는 기관 및 단체장 21명에게 운영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부설 제주시독거노인원스

터지원센터는 지난 6월 14일 제주경마공원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170명을 초청,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업무협약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제주서부경찰서, 현대자동차학원은 지난 6월 4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육을 받은 9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6월 14일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6명이 합격, 현대자동차학원에서 실기교육을 배울 예정이다.

시설탐방

(56)봉아름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아동에 용기와 꿈을...

교육·문화사업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문제는 재정난...지역사회 관심·지원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놀이,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일종의 '방과후 교실' 역할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봉아름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진희)를 지난 6월 19일 찾았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건물로 지어진 1층 규모의 센터 안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다. '까르르' 대던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낯선 이를 반겼다.

현재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31명, 정원(29명)보다 2명 많은 인원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정원을 들먹이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이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 가정 자녀로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 ▲보호 ▲문화 ▲복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학습지도 등 비롯해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교육, 한지공예, 시각교실, 수공예 비즈교실, 논술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골프교실과 난타교실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중 하나다.

지난 5월에는 제주시 담동광장에서 열린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센터 아동들이 직접 만든 비즈공예작품과 시각, 미누 등을 전시,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0월에는 민요를 일대에서 열리는 브래킹축세에 참가, 난타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센터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정난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만으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데기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 여름방학에 한화그룹에서 센터 아동들을 초청, 이랜드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항공료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임 시설장은 "7~8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다른 지방에서 여름캠프가 열린다고 해 벌써부터 아이들이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체류비용은 한화 측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정작 300만원에 달하는 아이들의 항공료를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역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연극, 스토리텔링, 무용, 공예,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더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리조트도 지난 3월 봉아름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센터 아동

들에게 무료 목욕 서비스와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가을이면 센터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센터 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건물을 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 시설장은 "대체 부지도 구하지 못한 데다 센터 건물을 새로 지을 돈도 없이 걱정이 크다"며 "센터가 없어지면 아이들도 갈 곳이 없어지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의=070-7797-0979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급증

제주시, 164가구에
의료·생계비 등 지원

경기 침체 여파로 실직과 휴·폐업 등이 잇따르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164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가구(9200만원)에 비해 54가구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의료비 122가구(1억2600만원), 생계비 및 전기요금 지원 19가구(2100만원), 주거비 3가구(300만원)이다.

제주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위기가정으로 판단, 긴급 지원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해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09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 36만원, 장제비와 전기요금은 각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기 가구가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된 데다 저소득층 주민의 뇌질환, 암 등 장기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숙인 62% 외지인...현장대응반 구성

제주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60% 이상이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노숙 우려자 45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으로 이 중 연고자가 제주시인 노숙인은 19명이며, 나머지 32명은 외지인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올해 초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찾은 노숙 우

려자 133명 중 62명을 귀향시켰고, 나머지 71명은 시립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지만 입·퇴소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여름철 노숙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노숙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폐가와 빈집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대·김정심씨, 푸드마켓에 쌀 기탁

박상대 대성수산업 어조합법인 대표와 김정심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 부녀회장은 지난 6월 20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달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100만원 상당의 쌀



23포대를 전달했다.

산방FC축구회, 푸드마켓에 금품 기탁

산방FC축구회는 지난 6월 21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불고기 95kg과 성금 30만원을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탁했다.

성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손가정 보금자리’ 말끔히 단장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집배원 봉사단과 사랑의집수리
도배·장판교체 등 환경 개선...“새집처럼 꾸며줘 감사”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이 집배원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23일 제주시 화북1동에 위치한 조손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날 집수리 봉사활동에는 제주우편집중국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365봉사단’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낡은 벽지와 장판을 갈고 방충망을 수리하는가 하면 전등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집 안팎을 말끔히 수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주우편집중국 류정태 국장(51)은 “제주지역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는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탓에 도배도 못했는데 이렇게 새 집처럼 꾸며줘 고맙기 그지없다”며 “손녀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흐뭇해했다.

봉사단은 “자그마한 손길과 도움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위안과 삶의 의욕이 되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제주우편집중국 직원들로 구성된 ‘집배원 365봉사단’ 회원들은 지난 6월 23일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한 조손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우편집중국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시락 배달과 운동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일대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노인학대 관련 사진전이 열렸다.

시민들은 노인학대 사진을 보고 “제주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반문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노인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교육



제주시정신건강센터는 지난 6월 14일 제주대학교병원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보건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상담 전문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살예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탁가정에 상품권 전달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람)는 최근 도내 위탁가정 42세대에 4200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홈플러스 e-판란재단’과 함께 하는 사랑의 쇼핑카트 캠페인을 통해 지원된 것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를 통해 한 세대당 월 2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된다.

소/식/마/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연수회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제주시지역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연수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는 7월 12~13일에는 남원 금호리조트에서 제주시 지역·자폐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죽원, 해외문화탐방 등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고 전남권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어 6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해외문화탐방에 나섰다.

이번 여행에는 장애인과 인솔교사 등 80명이 참여했으며,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가졌다.

화북동장애인지원협, 장애인 한마당 행사



제주시 화북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이학성)는 지난 6월 16일 화북동 청소년의 집에서 관내 차상위 재가장애인과 가족, 협의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공연, 장애인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크라운비페(대표 정동국)에서는 점심식사를 지원했다.

일배움터, 냥그늘 쉼터 운영



일배움터는 도민들의 열린 공간인 ‘냥그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에 설치된 냥그늘 쉼터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과 친환경농산물, 음료, 간식거리 등을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일배움터는 착한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혜재활원, 인권지킴이단 발대식



사회복지법인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재활원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22일 재활원 3층 재활활동실에서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용자와 직원, 보호자 대표,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재활원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농협애덕봉사회, 우수자원봉사자상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최근 열린 제4회 제주가톨릭사회복지대회에서 농협애덕봉사회에 우수 자원봉사자상을 수여했다. 농협애덕봉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애덕의 집 이용자들에게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조성 등 나눔을 실천해 왔다. 봉사회는 지난 6월 2일에는 애덕의 집 이용자들에게 삼겹살과 목국 등을 제공했다.

“특기와 재능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아동총회 제주지역대회서 결의문 도출
아동대표 8명 선발...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최로 지난 6월 9~10일 열린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제주지역대회에서 참가 아동들이 대회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제주지역대회가 지난 6월 9~10일 이틀간 제주리조트 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도내 아동 60여명이 참석했다. ‘꿈을 향해, 한걸음 더’란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개회식에 이어 미래의 명함 만들기, 그림일기 쓰기, 토론, 아동의 참여 보장과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문 도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학교에서 진로 관련 체험활동과 특강 시간을 마련해 줄 것과 진로상담센터 역할 강화,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0교시 폐지, 학용품 가격 인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정기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투표로 선발된 8명의 제주지역 아동대표들은 오는 8월 열리는 대한민국아동총회 본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선발된 아동대표들은 아동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출된 대안은 아동 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아동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스스로 토론하여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다.

사회복지시설에 꽃 무료 분양 제주농협지역본부, 해마다 꽃 나눔 행사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훈)는 지난 6월 27일 제주시 도남동 농협 꽃시범포 농장에서 농촌사랑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농협은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와 농촌체험학습용 꽃 분양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에 총 4500본의 일일초를 분양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1만본의 꽃을 분양하기로 했다. 제주농협은 또 8만본의 일일초를 재배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1만여본을 분양하고 도내 각 초등학교에 2만본, 팜스테이마을에 1만본 등을 나눠줬다. 제주농협은 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꽃분양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애인부모회, 우크렐레 교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지난 6월 14일부터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우크렐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실에는 장애아 부모 1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공연을 열 예정이다.

제주시랑봉사단과 나들이 행사



제주시랑봉사단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청암재활원을 찾아 중증장애인에게 전복죽과 간식을 제공했다. 또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역주민 참여하는 ‘나는 기자다’ 운영

시장박,장애인 등 기자단구성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는 기자다’ 사업을 운영한다. 한라일보와 연계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무엇보다 체험적인 기고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자단 구성을 구성, 사회복지 기초교육과 언론기고 작성실무교육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시민기자단을 양성하고, 언론 멘토를 위촉해 시민기자단의 활동에 깊이를 더하게 된다. 언론기고단은 오는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활동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해 독자가 공감하는 기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언론기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후원업체 개발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자단 운영을 비롯해 방송사와 연계한 공익영상사업,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활용한 조사연구 및 계몽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토요일 배움활동’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나를 위한 토요일 배움활동’이란 주제로 평생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오후 고등학교 학생과 연계해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매주 토



요일에는 한자교실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안교회·선교회,나들이 지원

제주성안교회 방문예배팀(전도사 이태욱)과 제주운전기차선교회(회장 김성근)은 지난 6월 5일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 이용자들의 나들이를 도왔다. 특히 방문예배팀과 선교회



는 이번 나들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택시 16대를 지원해줬다.

학부모가족봉사대와 협약

주사랑소규모요양원(시설장 한영희)과 한림초등학교(교장이광희)는 지난 6월 4일 학부모사랑실천 가족봉사대와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봉사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월 2회 미술·원예·요리치료 프로그램



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40,000	74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80,000	380,000
복지사업후원	2,170,000	934,870
푸드마켓후원	2,110,000	2,416,71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58년 후에 받은 아버지의 훈장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머물 수 없는 세월,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끝자락을 드리웠다.

금년 호국보훈의 달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58년 전인 1954년 4월 20일 아버님께 서훈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이순을 넘긴 자식이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참전...무공훈장

아버님은 이미 작고하셨다. 나는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공훈장에 대해서는 지금껏 듣지 못했다. 아버님께서도 서훈대상인걸 모르셨던 것 같다. 1954년이면 전쟁휴전 후 1년째였으니 상훈관계나 모든 행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을 터, 사선을 넘나드는 전선에서

오직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투혼을 불태웠을 아버님의 기개가 나의 상념을 채운다. 아버님 생전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방행정이 정상을 회복하여 진실을 전해 듣는데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말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포성이 멎은 지도 60년이 다되어가지만, 지금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상흔과 긴장감이 살얼음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필자는 평화의 시대를 살면서 역사로만 기억하는 한국전쟁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6·25 트라우마는 조국의 산하 곳곳에 스며있다. 오직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장병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가는 수많은 유가족의 비탄의 눈물을 나는 안다.

호국보훈의 달에 마스크를 장식했던 종북논란, 모 국회의원의 애국가 시비발언, 안보관의 위태로워진 혼미한 세태를 보면서 치밀어오르는 공분을 주체하기 어렵다. 통탄할 일이다. 어떻게 지켜온 이 나라인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안다면 종북과 애국가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침

의 영역인 사상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국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표출된 행동은 안 된다.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고, 국록을 받는 공인들의 안보관이 이렇다면 그대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 속에 나라가 있고 자유와 평등이 있기에 말이다.

우리가문은 2011년 병역명문가이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남자 8명 모두 225개월의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다. 거기에 더해 무공수훈자 가족이 되었다. 빼놓아진 국가관을 가진 일부의 그들을 보며 나는 한탄하면서 되된다.

순국선열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아버님의 빛나는 공훈과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기에 오늘의 영광된 조국이 있습니다.’

‘요즘 친북, 종북세력들 안보관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방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병역명문가와 무공수훈가족이 있으니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시론

사회복지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가 흥기에 찢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상담을 실시하던 중 학대 행위자가 미리 준비한 흥기에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얼굴, 목, 팔다리를 수회 찢려 중도에 빠지는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과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고 보 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실천의 중요한 좌표로 여기면서 실천해 왔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의 전문은 사회복지사의 기본행위와 사명, 최선의 노력, 그리고 다짐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천 대상자와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사건은 사회복지사의 존재의 근본을 흔들게 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패닉상태이다.

지난 해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주도는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사회복지사 신변안전 보호 시스템 마련해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보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권리옹호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신변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가 직면하고 사회적 위험요인들을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례와 지침, 행동대처를 위한 매뉴얼, 안전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은 자격증 부여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명령으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제정된 법률 제3조 4항에 근거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법,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때의 조치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회협회 내에 ‘사회복지사인권보호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전과 신분보장보다 대상자의 어려움과 위험에 고뇌하고 있을 모든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핵심은 ‘복지’



허 철 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관리담당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관련 업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물리는 ‘갈때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250여 가지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변자, 옹호자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클라이언트와(복지서비스대상자)의 상담, 안내, 방문, 소득, 재산조사 등 수많은 일들을 해내며 인간사의 사연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만능해결사로 슈퍼-맨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현금급여로 계좌입금되지만 지난 추억을 되새김질해보면 세상의 변화는 물론 초창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을 어깨에 메고 가가호호 방문, 바가지로 퍼주던 추억이 아련하다.

현물로 쌀을 지급받았던 수혜대상 어르신들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때 사회복지공무원을 배급서기, 영세민담당이라 지칭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중 사회복지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신규 채용인력 중 43%를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채용 계획 자체가 일선

복지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유로, 중앙정부도 인력확충에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행정’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2명 이상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4년까지 올해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82%가 여성공직자로 출산, 육아휴직이 계속 증가해 가용인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복지공직자들도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두운 곳에 한줄기의 빛이 되는 역할을 조성하고, 공직자 개개인이 내가 먼저, 말 따로 행동 따로 가 아닌 언행일치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힘찬 발걸음을 도약할 때가 아닌가 싶다

토론회 2세

“나눔 문화 확산 위해 ‘나눔 기본법’ 제정해야”

보건복지부 ‘제2회 국제나눔 컨퍼런스’ 개최

≫한건우 교수 “개별법만 18개…통합체계 갖춰야”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나눔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3~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국제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최근 우리사회에 고조된 나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나눔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연세대 한건우 교수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통합적 체계를 갖춘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기본법’, ‘식품기부법’ 등 산재돼 있는 현행 18여 개의 나눔 관련 개별법이 기부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에게 법적응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나눔 문화와 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관련 법,제도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재능 나눔, 착한 소비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각 개별 법률이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 정비해 새로운 형태의 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눔기본법’은 나눔 문화 확산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나눔의 정의 ▲나눔 문화 확산 ▲모집·배분의 원칙 ▲투명성 제고 등의 기본 내용을 담아야 하며, 관련법제의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6월 13~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나눔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 교수는 또한 “현재 ‘기부금품’, ‘기부’ 등의 법률용어로 혼재돼 사용되는 ‘나눔’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정의돼야 하며, 나눔 단체 및 기관과 관련된 법 규정의 정비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틀간 펼쳐진 토론회에서

는 일상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모집법에 기부자 중심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될 것 △계획기부 상품 도입 △시대정신을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사업에서의 협력과 파트너십 등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윌페어뉴스 제공>

“들쭉날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단일화해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정책토론회 개최

≫조승철 회장 “고용 보장·각종 수당 근거 마련해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선 고용 안전성 보장과 함께 각 시설별로 들쭉날쭉한 급여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회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대부분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무경력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해당 조례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방향과 관련해 그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급여는 시설 종류와 위탁법인에 따라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따라서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단일 급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현실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각종 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 안전성 보장과 함께 우수 사회복지사 인센티브제 시행, 재충전을 위한 안식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



▲지난 6월 27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보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도의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과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 규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미라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끊임

없이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희생만 요구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맞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우선 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능력과 업무에 맞는 급여체계 마련과 함께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 (6)청솔적십자봉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반세기’ 역사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서 50년간 묵묵히 봉사

회원들 봉사활동 25만시간... “나누면 행복해요”

반세기 동안 명맥을 이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매진해 온 봉사단체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청솔적십자봉사회(회장 부경숙). 청솔적십자봉사회가 결성된 것은 지난 1962년 6월. 당시 제주시내에 거주하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제주적십자부녀봉사회’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도내 최초의 적십자봉사단체였다.

‘봉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라 봉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봉사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는 핀잔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들

은 도내 곳곳에서 급식봉사는 물론 급차봉사, 장애인시설 위문 등 봉사활동을 하나씩 실천에 옮겼다.

‘나누면 행복이 커진다’는 신념으로 한 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이에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청솔적십자봉사회원들은 재난이재민 구호활동, 구호물품 전달, 어버이결연, 사랑의 무료급식, 밑반찬 배달, 다문화가정 지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장학금 전달, 복지시설 위문,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고 체계적인 봉사활동들을 전개하면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청솔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의 총 봉사시간만 무려 24만 9263시간에 달한다. 회원 중 4명은 1만시간 이상 봉사를 했다. 27년간 봉사회원으로 활동하며 1만1790시간을 봉사한 현수만씨는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봉사를 통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졌다”며 “봉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웃음을 전하는 활력소 같은 존재”라고 ‘봉사에찬론’을 폈다. 청솔적십자봉사회는 지난 6월 20일 봉사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순하씨 등 2명이 대한적십자사 총



▲지난 6월 20일 열린 청솔적십자봉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봉사회원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 표창을 받는 등 모두 14명이 표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청솔적십자봉사회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제주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부경숙 회장 “그 어려웠던 시절,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봉사한 선배 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며 “구호와 사회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에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희 제주적십자사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천사”라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2)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사업단인 ‘초록드림사업단’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영농공동작업장에서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먹거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영농공동작업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

를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매달 3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상추와 유채나물 등 각종 채소류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전달된다.

“맛 좋고 안전한 유기농 채소 드세요”

2009년 9월부터 매달 3차례 이상 푸드마켓에 기탁

먹거리 나눔 통해 이웃사랑 실천...이용자들 ‘호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지만 기술이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거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마켓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사실 협약 체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유기농 상추 245kg을 푸드마켓에 지원했지만 공식 협약을 통해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푸드마켓 지원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비싼 가격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저

소득층에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푸드마켓에 기탁한 유기농 채소만 무려 1366kg으로 500만원 어치가 훌쩍 넘는다.

특히 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채소류는 무척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나 푸드마켓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도지역자활센터의 나눔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활공동체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치는가 하면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지역 아동을 위해 지난 2007년 5월 공부방을 개설한 데 이어 2008년 4월에는 애월읍 수산리에 공부방을 열어 학습지원은 물론 생활지도,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기적의 공부방’을 개소했다. 이 공부방은 지난해 1월 ‘으뜸아이지역아동센터’로 전환돼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130명의 출자금을 모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살림자활공제협동조합’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수남 팀장은 “공동작업장에서 재배한 채소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맛도 좋다”며 “앞으로도 푸드마켓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